

Monthly Magazine

# wine

## Monthly wine

1879 T

발포리첼라(Valpolicella)

## Close up

조이환의 보르도 와인 탐방기 (10)

올림푸스 신의 음료, 샤토 페트뤼스(Chateau Petrus)

## 뉴질랜드의 와인

오클랜드, 말보로, 기스본으로 떠나는 와인여행

오스트리아의 와인 기행, 모차르트의 고향

## Cover Story

골프와 와인으로 통하다

최은수 호석주택건설(주) 대표이사

# 05

May 2012 vol.28

Chateau Margaux



06  
9 772093 070406



와인 산지 바하우(Wachau)

# 모차르트의 고향, 오스트리아의 와인

• • •

오스트리아는 역사가 깊고 음악과 건축을 비롯한 문화, 예술이 많이 발달한 중앙유럽의 국가이다.

구스타프 클림트(Gustav Klimt)와 같은 유겐트스틸의 대표 화가를 배출하였고

오토 바그너(Otto Wagner)와 같은 대표적인 근대 건축가도 오스트리아 태생이다.

그러나 음악으로 특히 유명하다. 볼프강아마데우스 모차르트(1756~1791)를 비롯하여

‘가곡의 왕’으로 불리는 프란츠 슈베르트(1797~1828), ‘교향곡의 아버지’ 요제프 하이든(1732~1809),

‘왈츠의 왕’ 요한 슈트라우스 2세(1825~1899) 등 많은 세계적인 음악가들이 오스트리아 출신이다.

요한 슈트라우스 2세는 “왈츠와 한 잔의 와인에는 양코르가 따른다”는 유명한 명언을 남겼다.

그가 와인 애호가였고 자신의 음악뿐만 아니라 오스트리아의 와인도

이미 당시에 훌륭했음을 동시에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글\_와인 칼럼니스트 박찬준 / 사진\_박찬준, Österreich Werbung

## 오스트리아 와인의 역사

오스트리아는 오랜 와인 생산의 전통을 자랑한다. 이미 기원전 7세기경에 와인을 생산한 역사적 기록이 남아 있다. 기원전 1세기에는 로마인들이 이주하여 체계적으로 와인을 생산하기 시작했다. 15~16세기에 오스트리아 전역에 와인 생산이 확대되어 현재의 약 3배 정도 규모의 면적에서 와인 생산용 포도를 재배하였다. 1907년에 최초로 와인법이 제정되었지만 1985년 한 와인 생산자가 가짜 와인을 만들어 유통한 스캔들때문에 당시까지 쌓아 놓았던 오스트리아 와인의 명성이 하루아침에 몰락하게 되었으며 수출이 거의 중단되었다. 이에 대한 반성으로 같은 해에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규정을 가진 새로운 와인법을 도입하였다. 이러한 제도적인 바탕과 와인 메이커들의 부단한 노력에 힘입어 오스트리아 와인은 1985년 이전의 명성을 능가할 정도로 그 품질의

우수성을 국내외적으로 인정받기 시작했다. 2002년 영국의 MW(Master of Wine)인 잔시스로빈슨(Jancis Robinson)과 팀 애트킨(Tim Atkin)이 런던에서 공동으로 주최한 그뤼너펠트리너와샤르도네 블라인드 테이스팅에서 오스트리아의 와인들이 1~4위를 휩쓸었고 Top 10에 그 외에 3개의 와인이 더 뽑히는 쾌거를 이루었다. 적어도 이때부터 오스트리아 와인의 우수성이 국제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2003년 개별 와인 산지의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내는 와인의 생산을 장려하고 품질을 관리하기 위해 DAC제도를 도입하였다.

현재 오스트리아는 전세계 와인 생산량의 약 1%를 생산하고 있으며 생산량의 약 1/4을 해외에 수출하고 있다. 이제 국제적인 도시에 있는 고급 레스토랑의 와인 리스트에는 적어도 1 내지 2종의 오스트리아 와인이 포함되어 있을 정도로 오스트리아 와인이 세계적으로 와인 애호가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와인 산지 쥐드슈타이어마크(Südsteiermar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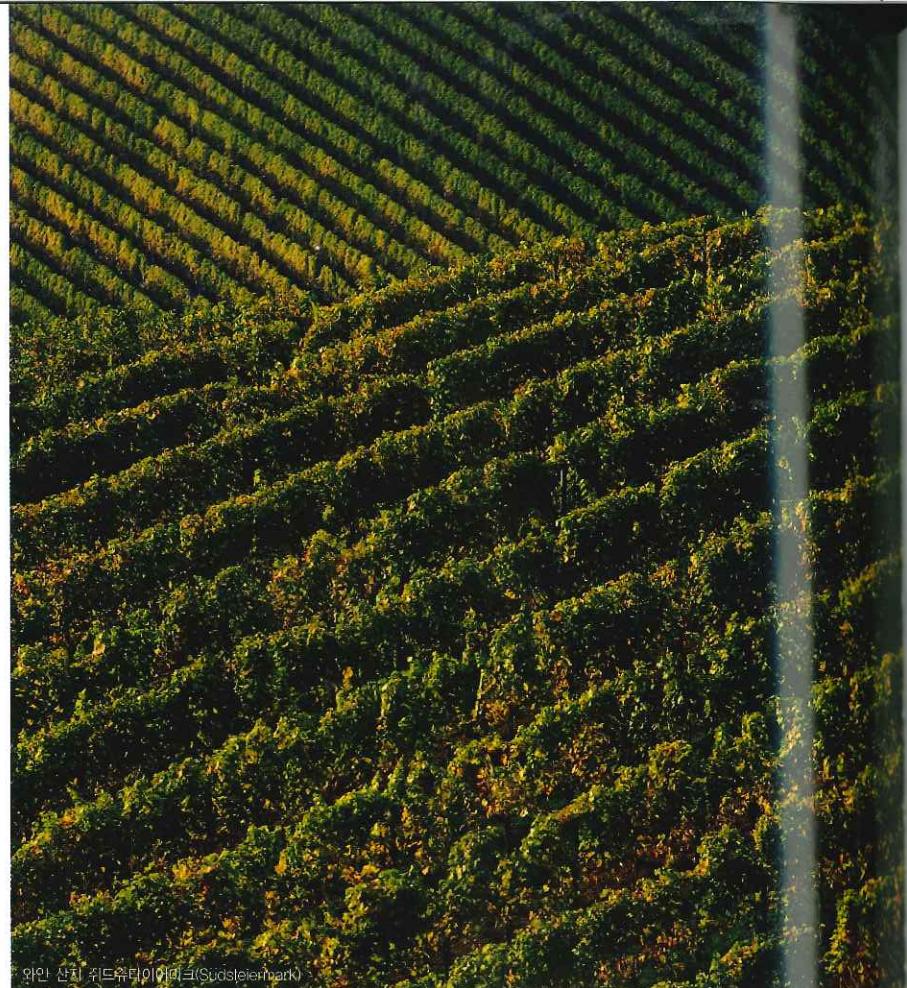
## 화이트 와인의 강국이지만 레드 와인 생산도 꾸준히 증가

오스트리아는 독일과 유사하게 전통적으로 화이트 와인의 강국이지만 레드 와인의 생산이 꾸준히 늘고 있다. 1999년을 기준으로 전체 포도재배면적의 약 75%가 화이트 품종, 25%가 레드 품종이었지만 2009년을 기준으로 화이트 품종의 재배면적이 66%로 감소되었고 레드 품종의 재배면적은 34%로 증가하였다. 화이트 품종의 전반적인 감소추세에도 불구하고 리슬링, 샤르도네, 바이스부르군더(Weissburgunder, 피노그리와 동일)는 오히려 재배면적이 증가하였다. 레드 품종의 경우에는 반대로 전반적인 증가추세에도 불구하고 포르투기저(Blauer Portugieser) 품종의 생산은 현저히 감소되었다. 레드 품종 중에서는 토착 품종인 상크트라우렌트(St. Laurent)와 오스트리아의 대표적인 레드 품종이며 토착 품종인 츠바이겔트(Zweigelt)가 가장 높은 비율로 재배면적이 증가하였다.

오스트리아의 크발리테츠바인(Qualitaetswein) 생산에 허용된 품종은 모두 35종인데 그 중 화이트 품종이 22개, 레드 품종이 13개이다. 대표적인 화이트 품종은 그뤼너펠트리너(Gruener Veltliner)와 벨쉬리슬링(Welschriesling)이며 각각 전체 생산량의 29.44%와 7.84%를 차지하고 있다. 벨쉬리슬링은 그 이름에도 불구하고 리슬링과는 완전히 다른 품종이다. 대표적인 레드 품종은 츠바이겔트(Zweigelt)와 블라우프랭키쉬(Blaufräenkisch)인데 각각 전체 생산량의 14.11%와 7.03%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오스트리아를 대표하는 품종은 그뤼너펠트리너이며 츠바이겔트가 그 뒤를 잇고 있다.

## 유기농 와인의 생산이 많고 포도 재배자와 와이너리의 대부분이 소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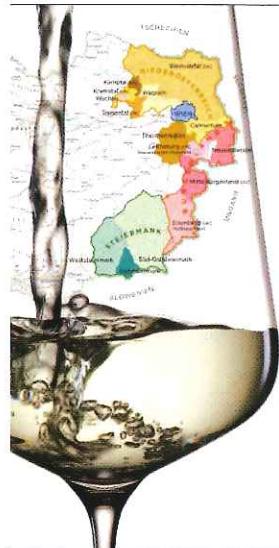
오스트리아에서 와인 생산용 포도의 재배면적은 점차 줄고 있다. 1987년 58,188 헥타르에서 1999년 48,558 헥타르로 많이 감소되었고, 2009년에는 45,586 헥타르로 약간 감소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오스트리아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고 유럽의 다른 와인 생산국들의 경우에도 대부분 그렇다. 오스트리아



와인 산지 쥐드슈티어마크(Südsteiermark)

의 포도재배자 수도 줄고 있지만 그 감소비율은 포도 재배면적의 감소율을 훨씬 능가한다. 1987년 45,380에서 1999년 32,044로, 2009년에는 다시 20,181로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포도 생산자의 평균 포도 재배면적은 1987년에 1.2 헥타르에서 1999년 1.52 헥타르로, 2009년에는 2.26 헥타르로 증가하였지만 그래도 소규모에 불과하다.

2009년 기준 포도 재배자의 숫자가 약 20,181에 달하지만 병입 시설을 갖춘 와이너리의 숫자는 약 6,500개에 불과하다. 오스트리아에 비해서 약 4배 가까운 포도 재배면적인 164,000 헥타르에서 포도를 재배하며 약 2,200의 병입자가 있는 호주와 비교하면 그 큰 차이를 쉽게 알 수 있다. 오스트리아의 와인 생산이 가족 단위로 많이 이루어지며 기계가 아닌 손 작업을 많이 하는 배경에는 이러한 데이터가 작용하고 있다. 많은 작업, 특히 포도밭에서의 작업이 대규모의 와이너리에서 기계에 의해 이루어지고 획일적이고 산업적인 신대륙의 와인 생산과는 달리 오스트리아에서의 와인 생산은 개인적이고 수공 예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작은 단위로 가족 중심으로 와인을 생산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친환경적으로 와인을 생산하는 데에 관심이 많다. 오스트리아의 와인 생산량의 10%는 유기농 와인일 정도로 친환경적인 와인 생산의 비율이 그 어느 나라보다도 높다.



## 오스트리아의 와인 산지

오스트리아는 9개의 연방주로 구성된 연방국가이다. 모든 연방주에서 와인이 생산되지만 니더외스터라이히(Niederoesterreich), 부르겐란트(Burgenland), 비엔나(Wien), 슈타이어마크(Steiermark) 이 4개의 연방주에서 대부분의 와인이 생산된다. 이 연방주들은 오스트리아의 동쪽에 모여 있다. 비엔나는 도시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연방주에 해당한다. 국가의 수도 중에서 비엔나는 유일하게 와인이 생산되는 수도이다. 앞에서 언급한 4개의 연방주는 다시 16개의 특정 와인 생산 지역(Weinbaugebiet)으로 구분된다. 연방주와 특정 와인 생산 지역을 도표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연방주	특정 와인 생산 지역	포도밭 면적(ha)
Niederoesterreich (니더외스터라이히) 27,128 ha	Weinviertel (바인피어텔)	13,356
	Kamptal (캄프탈)	3,802
	Kremstal (크렘스탈)	2,243
	Wachau (바하우)	1,350
	Traisental (트라이젠탈)	790
	Wagram (바그람)	2,451
	Thermenregion (테르멘레기온)	2,196
	Carnuntum (카르눈툼)	910
Burgenland (부르겐란트) 13,840 ha	Neusiedlersee (노이지들러제)	7,649
	Neusiedlersee-Huegelland (노이지들러제-휘겔란트)	3,576
	Mittelburgenland (미ittel부르겐란트)	2,117
	Suedburgenland (쥐드부르겐란트)	498
Steiermark (슈타이어마크) 4,240 ha	Sued-Oststeiermark (쥐드-오스트슈타이어마크)	1,400
	Suedsteiermark (쥐드슈타이어마크)	2,340
	Weststeiermark (베스트슈타이어마크)	500
Wien (비엔나)	Wien (비엔나)	612
Vorarlberg (포어알베르크)		80
Tirol (티롤)		
Salzburg (잘츠부르크)		
Kaernten (캐른텐)		
Oberoesterreich(오버외스터라이히)		

니더외스터라이히(Niederoesterreich)가 가장 와인 생산량이 많은 연방주이고 개별적인 특정 와인 생산 지역 중에서는 이 연방주에 속한 바인피어텔(Weinviertel),에서 가장 많은 와인이 생산된다. 포어알베르크(Vorarlberg), 티롤(Tirol), 잘츠부르크(Salzburg), 캐른텐(Kaernten), 오버외스터라이히(Oberoesterreich)에서는 모두 합쳐 80 �ект아르의 포도밭만 경작될 정도로 와인 생산이 미비하다.

오스트리아 전체를 3개의 와인 생산 지방(Weinregion)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바인란트(Weinland), 슈타이어란트(Steiererland), 베르크란트(Bergland). 바인란트에는 3개의 연방주 니더외스터라이히, 부르겐란트, 비엔나가 속하고, 슈타이어란트에는 연방주 슈타이어마크가 속한다. 나머지 연방주 5개는 모두 베르크란트에 속한다. 이러한 3개의 와인 생산 지방에서 란트바인(Landwein)이 생산된다.

## DAC 제도

DAC는 라틴어 Districtus Austriae Controllatus의 약자인데 이 라틴어는 '엄격한 오스트리아 통제'라는 뜻을 가졌다. 특정 와인 생산 지역에서 생산되는 퀄리티 와인 중에서 그 지역의 특성을 가장 잘 나타내는 와인에 이러한 DAC 제도를 도입하였다. 현재 모두 8개의 DAC가 존재하는데 2003년에 처음으로 Weinviertel(바인피어텔) DAC가 도입되었다. DAC 와인이 되기 위해서는 와인법이 허용한 포도 품종, 알코올 도수 등의 제한에 따라야 한다. DAC에는 Klassik과 Reserve의 두 스타일의 와인으로 분류되는데 Reserve의 경우에 더 엄격한 제한이 따른다. DAC 와인을 생산할 수 있는 지역에서 DAC 와인이 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와인이 생산된 지역이 속한 연방주를 산지로 표기해야 한다. 현재까지 인정된 DAC는 다음과 같다: Weinviertel(바인피어텔) DAC, Mittelburgenland(미텔부르겐란트) DAC, Traisental(트라이젠텔) DAC, Kremstal(크렘스탈) DAC, Kamptal(캄프탈) DAC, Leithaberg(라이트하베르크) DAC, Eisenberg(아이젠베르크) DAC, Neusiedlersee(노이지들러) DAC.

라이트하베르크 DAC는 특정 와인 생산 지역인 Neusiedlersee-Huegelland(노이지들러제-휘겔란트), 아이젠베르크 DAC는 특정 와인 생산 지역인 Suedburgenland(쥐드부르겐란트)의 일부에서만 인정되며 나머지 DAC들은 모두 그 DAC 이름과 동일한 특정 와인 생산 지역 전체에서 인정된다.



낭만적월 다뉴브 강



### 오스트리아의 와인 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

오스트리아는 프랑스의 상파뉴, 알자스, 부르고뉴, 독일의 와인 산지 바덴(Baden) 그리고 슬로바키아와 함께 유럽 와인 산지 중에서 B Zone에 속한다. 위도상으로는 부르고뉴와 동일하게 북위 47도에 위치하고 있다. 북쪽의 차가운 공기, 오스트리아의 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헝가리에서 유래하는 파노니아의 따듯한 기후, 온화한 지중해의 기후 영향을 받는다. 오스트리아에서 가장 유명한 강인 다뉴브 강의 영향도 함께 고려하여 오스트리아 와인 산지를 모두 4개의 기후 지역으로 구분한다: Weinviertel(바인피어텔), Donauraum(다뉴브 강 지역), Pannonischer Raum(파노니아 지역), Steiermark(슈타이어마크).

오스트리아의 여름과 가을에 낮에는 따뜻하고 일조량이 많지만 밤에는 온도가 많이 내려가서 일교차가 크다. 또한 포도가 비교적 천천히 그려면서도 충분히 익어 와인의 아로마가 풍부하고 밀도가 있으면서도 가볍고, 신선하면서도 콤팩트한 것이 오스트리아 와인의 가장 큰 특징이다.

## 오스트리아 와인의 등급

2009년에 개정된 EU 와인법과 오스트리아 와인법을 바탕으로 와인의 등급을 나눈다.

와인 등급	생산지	종류
Wein (바인) = 종래의 Tafelwein (타펠바인)	오스트리아 전체	
Landwein (란트바인)	3개의 와인 생산 지방 (바인란트, 슈타이어란트, 베르크란트)	
Landwein (란트바인)	9개의 연방주 16개의 특정 와인 생산 지역 DAC 지역	Qualitaetswein (크발리테츠바인) Kabinett (카비넷) Praedikatswein (프래디카츠바인)

위의 도표에서 보는 것처럼 와인의 등급이 높을수록 생산지의 범위가 좁아진다. 독일의 경우 크발리테츠바인(크발리테츠바인과 프래디카츠바인으로 2분되며 카비넷이 프래디카츠바인의 한 종류인 반면 오스트리아의 경우에는 카비넷이 별도의 크발리테츠바인으로 분류되어 있는 점이 다르다. 프래디카츠바인은 다시 슈파트례제(Spaetlese), 아우스레제(Auslese), 베렌아우스레제(Beerenauslese), 아우스브루흐(Ausbruch), 트로肯베렌아우스레제(Trockenbeerenauslese), 아이스바인(Eiswein), 슈트로바인(Strohwein), 쉴프바인(Schilfwein)으로 분류된다. 이러한 프래디카츠바인은 크발리테츠바인 중에서 포도가 익은 정도와 수확 방식이 특별한 경우에 해당된다. 독일의 프래디카츠바인의 경우에는 없는 아우스브루흐, 슈트로바인, 쉴프바인이 포함되어 있다. 프래디카츠바인의 구분에는 포도즙의 당도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만 슈트로바인과 쉴프바인의 경우에는 짙이나 갈대의 위, 혹은 이러한 재료로 만든 끈에 묶어서 포도를 3개월 이상 건조시켜 만든 와인이다.



크발리테츠바인의 마크 및 품질 심사 번호



6월 2일부터 3일간 비엔나에서 열리는  
와인 박람회 비에비눔(vievinum)의 로고

오스트리아 와인 마케팅의 대표  
빌리 클링거(Willy Klinger)와  
비엔나에서 열리는 와인 박람회장의 대표  
알렉산드라 그라스키 호프만(Alexandra Graski Hoffmann)



와인 산자 미텔부르겐란트(Mittelburgenland)



오스트리아의 대표적 화이트 와인 그뤼너벨트리너